

화답송

시편 121(120), 1-2. 3-4. 5-6. 7-8

(후렴) 우리 구원은 주님이름에 있으니,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.

1. 눈 - 을 - 들어 산을 보 - 노 라. 나의 구원 어디서 오 - 리 - 요?
 2. 그 - 분 - 은 너의 발걸음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앓으시리라.
 3. 주 - 님 - 은 너를 지키 시 - 는 분, 주님은 너의 그늘, 너의 오른쪽에 계 - 신 - 다
 4. 주 - 님 - 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 키 신 다. 그분은 너의 목숨 지 켜 주 신 다.

나의 구원 주님에게서 오 - 리 - 니,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- 이 시 다.
 보라, 이스라엘을 지 키 시 는 분, 졸지도 앓으시리라, 잠들지도 앓 으 - 시 리 라.
 낮에는 해도, 밤에 는 - 달 - 도, 너를 해치지 못 - 하 리 라.
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 키 신 - 다. 이제부터 영 - 원 까 지.

알렐루야

(후렴)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 알 렐 루 야

하 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 며, 마 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 려 낸 - 다.